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2011년에 뜰 비즈니스 아이디어 집합
파워블로거 통해 단골손님 잡는 법
토러스투자증권이 '작지만 강한' 이유

30대 그룹 여성 임원 대해부 123명의 '시크릿 다이어리'

'1등 LG' 이끌 LG그룹 차세대 리더들
'고개 드는 유로화 붕괴론' 현지 리포트
투자 귀재 이민주 회장이 해운업 짬한 까닭



김정태 하나은행장 인터뷰
"초심 되돌아보고 기본으로 돌아갈 것"



한국경제신문

값 3,500원



ISSN 1228-4440

브라질 자원 에너지 확보 전쟁

세계 기업 각축...한국 기업 보기 힘들어

브라질은 오일 & 가스 저널(Oil & Gas Journal)이 발표한 2010년 세계 원유 확인 매장량 순위에서 128억 배럴로 전체 1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7년 후반부터 발견된 투피(Tupi)·주피터(Jupiter)·카리오카(Carioca) 지역의 심해저 유전 매장량이 확인되면 브라질의 매장량은 세계 10위 이내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향후 심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 뉴욕거래소와 상파울루거래소에서 동시에 약 680억 달러를 증자하기도 했다.

드릴십 등 유전 탐사 장비 대거 발주

유전 발견은 유관 산업까지 이끌어 가고 있다. 유전 개발을 위해 페트로브라스는 2020년까지 드릴십 등 유전 탐사 관련 장비의 수주 계획을 내놓았다. 페트로브라스는 2014년까지 드릴십 28척, 보조 선박 250척, 반잠수형(Semi-Submersible) 및 선박형(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플랫폼 43기 등의 선박 수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발된 원유의 수송도 사전에 확보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페트로브라스의 자회사 중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트랜스페트로(Transpetro)는 2004년과 2008년에 발표한 브라질 선박 근대화 및 선박 수확대 계획에 따라 총 49척의 유조선 발주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STX는 2009년과 2010년 사이

에 페트로브라스에 장기 용선을 하려는 유럽 선주들로부터 해양 시추 지원선(AHTS)과 해양 작업 지원선(PSV)을 6척 수주했고, 트랜스페트로로부터는 LPG 선박 8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도 브라질 현지 조선소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페트로브라스 또는 트랜스페트로의 선박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 석유법(법률 제9478호)상 브라질 영토 내의 모든 석유는 연방정부의 소유이다. 석유를 개발하는 권리도 연방정부에 전속된다. 그 구체적인 운영은 석유와 천연가스 및 바이오 연료를 담당하는 ANP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석유법 제정 전까지는 국가만이 석유를 탐사하거나 생산할 수 있었다. 현재는 석유법 제정으로 민간에게 개방돼 민간 사업



브라질은 직접적인 자원 개발 사업 외에도 석유 또는 광물자원의 수송·처리·가공 및 풍력발전 설비의 생산·판매 등 다양한 유관 산업에 진출할 기회가 동시에 펼쳐져 있는 나라다.

자들이 입찰을 통해 분배되는 사업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브라질 내 석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1999년 첫 입찰이 이뤄진 이후 2008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입찰이 이뤄졌으며 총 727개의 광구가 낙찰됐다.

외국 기업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석유 사업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석유 사업권 취득 후 개발 사업을 하려면 브라질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현재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 외에도 85개 정도의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가 유전 개발 사업권을 부여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SK에너지가 브라질 현지법인을 설립해 BM-C-8, BM-C-30, BM-C-32 광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브라질 현지법인의 지분을 덴마크 머스크오일(Maersk Oil)에 매각했다.

브라질은 석유 외에도 다양한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원은 철광석(매장량 5위, 생산량 2위), 니오븀(매장량 및 생산량 1위), 보크사이트(매장량 3위, 생산량 2위), 주석(매장량 및 생산량 5위) 등이다. 아마존 지역의 지하자원은 아직 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브라질은 이미 세계적인 지하자원 부국이자 광물 수출국이다.

브라질 내의 광물자원은 DNPMM으로 불리는 브라질 광물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최대의 광

업 기업은 발레(Vale)인데, 준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연방정부가 지분 5.5% 보유). 발레는 광업 외에 철강 사업도 하고 있는데 최근 동국제강 및 포스코와 함께 고로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석유와 달리 광업권에 대한 입찰 제도가 없다. 대신 사업권 허여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심해 유전 시추선.

(Concession) · 수권(Authorization) · 면허(License) · 허가(Permission) · 독점(Monopolization) 등 DNPM에 의한 다양한 권리 부여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현지법인을 설립해야만 한다. 최근 SK네트웍스는 브라질 최대 민간 기업 중 하나인 EBX그룹 산하의 광업 기업 MMX의 지분 11%를 7억 달러에 인수했다. SK네트웍스의 투자는 한국 기업의 브라질 내 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신호탄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브라질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이 신의 은총을 받아 확보하게 된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탕수수를 이용한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생산된 에탄올을 실제로 자동차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5년 에탄올 에너지 국가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및 법제를 정비해 왔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한동안 에탄올 활용률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2005년 이후 다시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현재 브라질의 주

유소에서는 가솔린에 에탄올 25%를 반드시 혼합해 판매해야 한다.

석유나 광물자원과 달리 브라질에서의 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 경작 및 이를 위한 토지 구매에는 외국인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토지의 구매 범위, 지역별 토지 소유 비율 등에 제한이 있다. 석유나 광물자원은 주주가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브라질 법인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에탄올 생산은 대주주가 외국인이면 브라질 현지법인이라도 외국인으로서의 제한을 받는다.

현지법인 통해 자원 개발 참여 가능

브라질 농업연구원(EMBRAPA)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농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바나 토양을 개선해 세계적인 대두 생산지로 바꾼 농업연구원은 농업 생산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바이오 디젤 생산이 가능한 작물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다. 대두 · 피마자 · 해바라기 등 채유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기술로 생산된 디젤이 브라질 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분야에

서만큼은 적어도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브라질 전력 공급원 중 수력이 가장 높은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수자원과 개발 독재 시절의 대규모 공사에 대한 필요가 맞물려 빚어진 결과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브라질 북동부 지역은 다른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브라질 풍력 자원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지역 정부들은 전력 공급원의 분산과 지역 개발을 위한 대안으로 풍력 개발에 적극적이다. 풍력 자원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진출을 고려하기 가장 적합한 에너지 관련 분야로 보인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및 에너지원을 보유한 브라질은 그야말로 세계 각국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아직까지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자체가 적어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이 많지 않다고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자원 개발 사업 외에도 석유 또는 광물자원의 수송 · 처리 · 가공 및 풍력발전 설비의 생산 · 판매 등 다양한 2차, 3차 유관 산업들에 진출할 기회가 있다. 이와 함께 자원 및 에너지원의 확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브라질 자원 및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제3기 수료,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현).